

# ‘낀 세대’ 40대의 시름

고물가와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의 그림자가 국내 경기에 드리운 가운데 40대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40대는 사회 초년생 때 겪은 IMF 외환위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불안정한 고용과 부실한 노후 준비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절벽 영향은 40대에 여실히 드러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2.3%)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는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40대 취업자 수가 19만명 선을 밑돌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광주지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내 집’을 가진 광주 40대는 4년 연속 줄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40대 주택 소유자는 10만4279명으로, 전년보다 0.3%(-352명) 감소했다.

40대(-0.3%)와 30대(-2.5%)를 뺀 30세 미만(8.8% ↑)과 50대(2.9%), 60대(7.1%), 70대(3.1%), 80세 이상(12.1%) 등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대보다 주택 소유자 수가 늘었다.

광주 40대 주택 소유자 수는 2018년 10만 5963명, 2019년 10만5585명, 2020년 10만 4631명, 지난해 10만4279명 등으로 4년 연속

사회 초년생 때 IMF 겪고 취업자 14개월 연속 감소 ‘내 집’ 소유 4년 연속 줄고 대출 잔액 가파르게 늘어

감소 추세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부채 상황은 심화하고 있다.

만 40-64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중장년층 개인대출 잔액(카드 대출 포함) 중앙값은 지난 2020년 5000만원 선에 머물렀다.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중앙값은 수치를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광주 중장년층 대출잔액 중앙값은 4500만원

(2018년)→4960만원(2019년)→5000만원(2020년)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광주 중장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중앙값은 지난 2020년 2352만원으로, 전국 중앙값 2400만원을 밑돌았다.

586(60년대생)과 MZ(밀레니얼-Z)에 ‘낀 세대’인 40대는 노후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짊어지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광주지역 가구주에게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어보니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률은 지난 2012년 54.9%에서 올해 73.3%로, 10년 새 18.4%포인트 증가했다.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사회보험료에 따라 받는 연금도 포함된다.

광주 19세 이상 가구주에게 노후 준비방법을 물어보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2011년 20.3%에서 지난해 23.8%로 늘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광주시민들의 40.6%는 준비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앞으로 준비할 계획’ 37.2%,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11.7%, ‘자녀에게 의탁’ 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들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그 방법으로 든 비중이 56.2%로 가장 많았다.

올해 광주 30세 이상 가구주에게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물어보니 ‘매우 부담스럽다’(14.7%)와 ‘약간 부담스럽다’(36.1%) 등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ISO 14001·45001 동시 인증

〈환경경영·안전보건경영시스템〉



GGM 임직원들이 본사 상생홀에서 환경경영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기념하고 있다.

〈GGM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2개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GGM에 따르면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진행한다.

ISO 14001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환경성 성과를 거두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ISO 45001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이다.

GGM 측은 이들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은 그동안 ‘안전 환경 최우선 경영 실천’과 ‘중대 재해 사고 제로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지속 개선·실행한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지난 7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했다는 점에서 품질과 환경, 안전 등 주요 3개 분야에서 모두 ISO 인증을 받는 등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기존 내연기관차와 함께 전기차 생산을 병행하는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생과 최고 품질을 확보해 자동차 위탁 생산 전

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는 GGM이 품질 경영에 이어 환경경영과 안전보건경영 부문에서도 ISO 인증을 획득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2019년 9월 광주시와 현대차 등 37개 주주사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이자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다. 2021년 9월 캐스퍼 양산을 시작한 뒤 누적 생산 5만5000대, 올 생산 4만2000대를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이마트-위니아 100만원 미만 세탁기·건조기 출시

이마트가 위니아와 손잡고 100만원 아래 가격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놓았다.

이마트는 자체 가전 상표 ‘일렉트로맨’을 내걸고 위니아와 협력해 ‘컴팩트 세탁·건조기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상품은 12kg 드럼 세탁기와 10kg 저온제습 건조기 등으로 구성됐다. 공식 판매가는 109만원으로, 연말까지 행사카드로 사면 10만원 할인한 99

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인 위니아는 3년 무상 수리(AS)를 제공한다.

이마트 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시중 세탁기·건조기 가격이 전년 대비 10~15%가량 인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전 기획을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대량 물량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판촉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피드업’ 세탁 기능을 쓰면 15분 만에 세탁할 수 있고, 옷감과 상황에 따라 16가지 맞춤 세탁이 가능하다. 먼지와 보풀까지 제거할 수 있고, 저온 건조로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마트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하고 4인 가족도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선호하는 가구가 많은 점에 착안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소용량 제품으로 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1회 평균 세탁량은 7kg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행운적금’ 흥행몰이

출시 2개월만에 2만계좌 돌파

광주은행은 ‘행운적금’이 출시 2개월 만에 2만계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은행 창립 54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행운적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이나 모바일 웹 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매주 월요일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이 행운번호를 대상으로 금요일에 추첨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당첨되면 1년제 정책 적립식의 경우 연 13.70%(자유적립식 연 13.40%)의 높은 금리이다. 행운번호를 추첨하는 재미 요소까지 더해져 인기가.

총 28회에 걸쳐 540개의 행운번호를 추첨한다. 행운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명품 가방 등이 걸린 고객 이벤트도 한다.

월 10만원 이상 정책적립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운의 사넬 다 드림’은 오는 12월16일까지 진행한다.

지인에게 적금 상품을 알려주 우대금리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운적금 소문내면 더 드림’은 내년 3월12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광주은행의 54년 역사를 함께 한 지역민·고객과 재미와 감동을 나누고자 ‘행운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금융의 즐거움과 더불어 금융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힘써 광주은행만의 특별함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광주조달청 간담회

지역 제품 판로확대 등 논의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과 지역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지역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 지역 중소기업협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구매 제도 활성화 ▲공동상표 적용 중소기업공동사업제품 위탁구매 지침 개선 ▲학교 졸업앨범 구매시 MAS 적극 활용 ▲물가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신속 조정 ▲조달청장 표창 수여 확대 등이다.

임경준 회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인건비, 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적자폭이 지속되며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물가변동이 반영된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받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배성 청장은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조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 에너지공동체 육성’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선정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에너지공동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역민에게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1개월간 추진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역에너지 공동체 구성부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유지 보수, 역량강화교육까지 ‘생애전주기형 지원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7개의 전남 에너지공동체를 발굴해 기술 지도, 개발 행위 및 계통연계비 등 30

건을 지원하고, 110명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기초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및 지역에너지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발전소 소재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격 거리 선정 제외, 지자체별 상이한 발전사업 조건의 합리적인 조정 등 제도 변경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원은 전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에너지 수익 창출과 도내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것”이라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전남 에너지자립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광주·전남 선관위 대책 논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 선관위가 연 논의 자리에는 광주시·구위원회 간부·직원과 전남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장 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3월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남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며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에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며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하고, 통·리·반장과 영농·부녀회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해 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7.45(-2.88)
↓ 코스닥	743.10(-1.86)
↑ 금리(국고채 3년)	3.808(+0.055)
↑ 환율(USD)	1325.00(+7.40)